

## 전남도, 세계 예술의 중심지 뉴욕 수묵으로 적신다

30일까지 뉴욕한국문화원서 특별전... 회화·사진·퍼포먼스 등 다채

전라남도가 수묵 예술의 다양성을 통해 케이(K)-수묵의 세계화라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미국 뉴욕한국문화원과 공동으로 오는 30일까지 21일간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뉴욕 수묵 특별전 개최한다.

‘뉴욕, 뉴인크(New York, New Ink)’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특별전은 케이-수묵의 확장성을 알리고 차기 연도에 개최될 수묵비엔날레의 성공을 위해 2019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해외 수묵 전시 사업 일환이다.

지난 9일(현지 시간) 열린 개막식에선 강효석 전남도 문화융성국장, 김천수 뉴욕한국문화원장, 론킵, 에드워드 브론스타인 뉴욕주 하원의원, 유시연 뉴욕호남향우회장 등 주요 내빈과 예술인 등 300여 명이 참석해 남도 수묵의 수준 높은 작품성과 현대 미술의 다양한 매체로 융합된 수묵의 세계화 가능성을 확인했다.

부대행사로 한복의 선과 주름이 수묵화처럼 우아하게 펼쳐지는 모습을 연출한 한복 퍼포먼스, 절제적이고 창



조적인 수묵 정신을 체현하기 위한 정광희 작가의 일회 긁기 시연도 펼쳐졌다.

현장에서는 수묵의 전통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하고 수묵이 지닌 광활한 스펙트럼을 제시하는 의미있는 행사였다는 예술계의 극찬이 쏟아졌다. 다수의 현지 언론사도 참여해 개막식의 생생한 장면을 촬영했다.

이번 전시는 윤재갑 수묵비엔날레 총감독이 기획하고 아트 디렉터 스테

파니 킴이 연출을 맡았다. 구성연, 한영섭, 케이온, 이이남, 설박, 강운, 김상연 등 전남 출신 유명 작가 등이 대거 참여해 케이-수묵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다. 또한 수묵 예술의 전통을 기반으로 한 회화, 사진, 퍼포먼스, 영상, 설치 등 다양한 장르의 현대적 작품으로 관객에게 새로운 예술적 경험을 선사하고 있다.

개막식에서 강효석 문화융성국장은 “세계 예술의 중심지 뉴욕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가 전세계 미술인에게 신선하고 감동적인 반향을 일으키길 바란다”며 “수묵이 전세계를 이끌어 갈 케이-콘텐츠로 확고히 자리잡도록 더욱 힘을 쓸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난해 9월 동아시아적 미학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지역을 넘어 세계와 소통하는 문화예술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혜경 기자

## 화순군립최상준미술관, 2026년 미술 교육 프로그램 강사 모집

지역 주민·어린이의 예술적 성장 이끌 전문 강사 선발

화순군(구북구 군수)은 화순군립최상준미술관(화순읍 동구리에 위치)에서 2026년 미술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할 전문 강사를 1월 9일부터 1월 1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사 모집은 성인 대상 미술 교육 프로그램인 ‘미술교실’과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인 ‘동구리 어린이 미술학교’ 운영을 위한 것으로, 미술을 통해 지역 주민과 어린이의 창의성과 예술적 감수성을 키워 줄 역량 있는 강사를 선발할 계획이다.

성인 교육 프로그램인 ‘미술교실’은 유화반과 수채화반으로 운영된다. 유화반은 2개 반(초급반, 중급반)으로 각 3차시(차시별 13회차)로 구성되어 기초부터 심화과정까지 단계별 수업을 통해 수강생들이 다양한 표현 기법을 익히고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프로그램이다.

수채화 반은 2개 반(초급, 중급)으로 각 2차시(차시별 22회차)로 운영되며, 물과 색의 특성을 활용한 자유로운 표현을 통해 창작의 즐거움과 미술적 감각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둔다. 해당 강사는 수강생의 수준과 개성을 고려한 맞춤형 수업을 기획·운영하며 예술적 표현력 향상을 이끄는 역할을 하게 된다.

어린이 프로그램인 ‘동구리 어린이 미술학교’는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미술 교육 프로그램으로, 미술 교과서와 연계한 체험 중심 수업을 통해 어린이들이 미술을 쉽고 즐겁게 접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강사는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창의적인 수업을 운영하며, 다양한 미술 활동을 통해 상상력과 표현력을 자연스럽게 키워주는 교육적 역할을 하게 된다.

미술교실 각 차시 종료 시에는 수강생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해 교육의 질을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 전반을 개선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로 교육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방침이다.

모집인원은 미술교실 유화반 강사 2명(초급반 1명, 중급반 1명)과 수채화 강사 2명(초급반 1명, 중급반 1명), 그리고 동구리 어린이 미술학교 2명(주강사 1명, 보조 강사 1명)으로 총 6명이다.

지원 자격은 관련 전공 대학 졸업자로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의 강의 또는 실무 경력을 갖춘 자이며, 미술 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함께 흥미롭고 창의적인 교육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인재를 우대한다.

강사 선정은 선정위원회에서 심사 후 개별 통보할 계획이며 강사로 선정되면 2026년 2월부터 12월까지 각 프로그램 일정에 맞게 수업을 지도하게 된다.

접수 방법은 화순군립최상준미술관 누리집(<http://sbart.or.kr>) 공지 사항에서 제출 서류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방문 또는 이메일(arths2018@naver.com)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문의 사항은 화순군립최상준미술관(061-379-3836~7)에 문의하면 된다. 화순/김종환 기자

## 광주 희망장난감도서관 10주년, 아이들 꿈 키웠다

지난해 이용 6108건... 378→463→549명 가입자 증가세  
연회비 3만원에 888개 장난감 발달단계별 마음껏 이용

광주시청 내 자리한 희망장난감도서관이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든든한 육아 버팀목으로 자리잡았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025년 한 해 동안 549명의 부모가 희망장난감도서관에 가입했으며, 총 이용건수는 6108건을 기록했다고 9일 밝혔다.

희망장난감도서관 가입자는 2023년 378명, 2024년 463명, 2025년 549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가입자 중 75%(410명)는 최초 가입자로, 장난감도서관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장난감도서관은 시청 1층에 자리하고 있으며, 회원 대상으로 최장 3주일까지

장난감을 대여해주는 육아 지원시설이다. 지난 2015년 개소해 운영 10주년을 맞았다.

회원가입 자격은 광주시에 주소를 두고 5살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다. 연회비는 3만원이며,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연회비가 면제된다.

광주시는 자원봉사센터·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함께 희망장난감도서관을 운영 중이다. 자원봉사센터 봉사자들이 도서관에 상주하며 시설을 관리하고,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기부금 관리 등 운영을 총괄한다.

희망장난감도서관은 경제적 부담 없이 아이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게 해 부모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5세 이하 영유



아는 발달단계에 따라 장난감에 대한 흥미와 필요가 빠르게 달라지는데, 장난감도서관에서는 발달단계별로 장난감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희망장난감도서관은 현재 미끄럼틀·트램펄린 등 888개의 장난감을 보유하고 있다. 이 중 지난해 확충한 장난감은 153개이다.

최진아 여성가족과장은 “아이들이 사용하는 물건만큼, 위생·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며 “앞

으로도 장난감을 지속 확충하는 등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지역에는 광주희망장난감도서관을 비롯해 ▲동구 푸른마을공동체장난감도서관 ▲서구 아미장난감도서관 ▲남구 구립방정길장난감도서관·아이사랑장난감도서관 ▲북구 꿈나무장난감도서관 ▲광산구 키움뜰장난감도서관·하남희망장난감도서관 등 8곳의 장난감도서관이 운영 중이다. /김명수 기자

## 담양군 한국대나무박물관, 박구환 작가 특별 초대전 열어

유년 시절의 기억을 예술로 풀어낸 ‘기억을 걷는 시간’ 전시 운영

담양군(군수 정철원)은 지역 문화예술 자원을 발굴·조명하기 위한 특별 기획전의 일환으로 서양화가 박구환 작가 초대전 ‘기억을 걷는 시간’을 1월 12일부터 3월 30일까지 한국대나무박물관 갤러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박구환 작가는 15년 전 담양군 수북면에 정착해 활발한 작품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지역 예술인으로, 자연이 빚어낸 풍경을 판화의 소묘기법으로 표현해 섬세하면서도 깊이 있는 조형미를 구현한 독창적인 작업 세계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유년 시절의 기억을 작가 특유의 예술적 언어로 재해석한 작

품들을 선보일 계획이다. 유년 시절의 기원과 색감, 형태 등을 작가의 시선으로 담담하게 풀어내며, 관객들에게 따뜻한 공감과 삶의 위로를 전할 예정이다.

정철원 군수는 “이번 초대전은 지역 작가의 작품 세계를 조명하고 군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많은 분들의 관심과 관람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대나무박물관은 매년 지역 예술인 초대전을 통해 역량 있는 작가를 발굴하고 창작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의 거점 공간으로서 역할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담양/이종욱 기자

국민 내로남 말고는  
**보다나인 농어촌**

**농**

지가 있다면

**지**

금 바로 가입해야 할

**어**

금이 있습니다

**기**

똑같은 노후 설계 찬스~

**지원대상** • 농지를 소유한 만60세 이상 농업인/영농경력 5년 이상(전체 영농기간 합산)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  
• 지원대상 및 대상농지에 대한 제한사항은 별도 문의

**연금수령액** • 농지가격과 연령에 따라 결정(월 300만원 한도)  
• **농지가격**: 개별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액 90%

**가입혜택** • 소유농지를 담보로 평생 연금 보장  
• 담보농지는 자경 또는 임대소득 가능  
• 6억원 이하 농지 재산세 감면

상담문의 | 1577-7770 [www.fbo.or.kr](http://www.fbo.or.kr)